

태양광, 환경기초시설에도 설치

인천, 전력 28만5000kWh 생산 ... 송도·청라에도 2014년 추가

인천시는 환경기초시설 5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11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인천환경공단은 공공 하수처리장 및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 5곳에 총 210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11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7월23일 발표했다.

인천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국비와 시비 50%씩 9억원 정도를 투자될 계획이며, 7월 착공해 10월 말 준공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송도·청라·남항사업소 50kW, 공촌·강화사업소 30kW로 연간 28만8000kWh의 전력을 생산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전력을 생산해 사업소별로 자체 사용함으로써 매년 40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33톤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각장 및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송도 및 청라사업소도 2014년 50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환경공단의 관계자는 “인천지역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자율절전 및 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23>